

피피케이 오픈 1주년 기념 간담회

럭키화광그래픽스사와 강한 파트너십 약속 내년 한국인쇄인들 중국으로 초청할 것

텡 팡치엔(Teng Fangqian) 럭키화광그래픽스 총사장과 왕쯔(Wang Zhi) 비즈니스 부사장이 지난 9월 7일 내한했다. 이에 화광브랜드의 한국총판사인 피피케이(PPK)는 호텔PJ에서 간담회를 갖고 텡 팡치엔 총사장의 방한 의미와 피피케이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일영 피피케이 사장은 내년 상반기 신제품발표에 맞춰 한국 인쇄인들을 중국의 화광그래픽스 공장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텡 팡치엔(Teng Fangqian) 럭키화광그래픽스 총사장

중국 럭키그래픽스 총사장님의 이번 방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시장은 세계 인쇄시장에서도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시장이라서 화광에서도 한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화광 브랜드의 한국 총대리점인 피피케이 오픈 1주년을 맞아 피피케이와 럭키그래픽스사가 그동안 쌓아온 파트너십과 협업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차후 양사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자 방한했습니다.

화광 창립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구상하고 계시는 제품 또는 비즈니스의 개발목표 및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화광의 가장 크고도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는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광이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품질 및 사양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안정성에 바탕을 둔 후 친환경인쇄 제품인 무현상판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광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의 화광총판사인 피피케이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고, 그 결과를 세계시장 비즈니스에도 적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화광은 경쟁사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 및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화광의 생산라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중국에서 제일 큰 공장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광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연구개발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발팀이 질 좋은 상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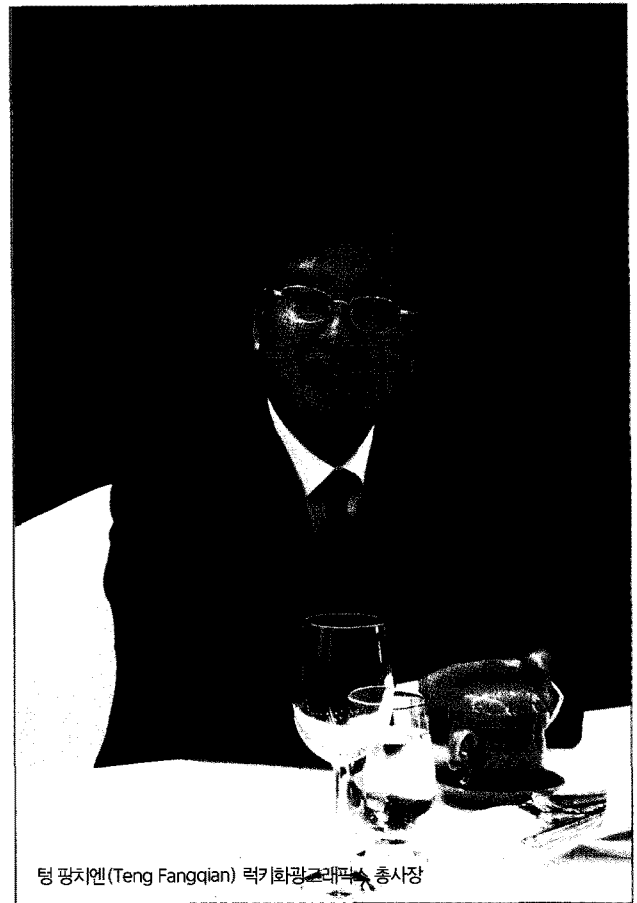
화광은 중국내 유일한 국영기업으로서 과감한 시설투자과 연구인력의 투입으로 인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무현상판 생산을 위한 제8라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시설 및 연구인력을 밑바탕으로 최적의 품질 및 가격을 유지하여 화광제품을 아껴주시는 고객분들이 성공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화광에는 좋은 서비스팀과 AS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피피케이와도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화광은 한국의 인쇄인들을 위해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며, 김일영 피피케이 사장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시장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화광브랜드가 한국시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한국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CTP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은 인쇄도 발달하였고 인쇄출력기술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시장은 새



텡 팡치옌(Teng Fangqian) 력7화광총판사 총사장

로운 제품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화광은 이러한 고객사랑에 힘입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한국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한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광의 한국총판인 피피케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화광과 피피케이는 한국의 인쇄산업이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인쇄시장은 어떠한가?

중국에서 일년동안 사용하는 CTP판의 양은 대략 1억8천만 평방미터에 달하는데, 이중 화광은 35%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CTP판재의 총양은 한국보다 많지만 사용비율에서는 낮을 수 있습니다. 한국외에도 태국 싱가포르에서도 화광브랜드는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총사장님의 경영철학은 무엇인가요?

제 경영철학은 성심과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심은 저희들의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더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남은 전시회가 상해에서 열리는데, 무현상판과 포장인쇄 분야의 제품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일영 피피케이 대표이사

*** 김일영 피피케이 대표이사**

중국 총사장이 방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메이커 판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때문에 중국판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재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제품들중에서 화광의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중국 총사장이 방한한 것입니다. 신제품발표도 출시자체를 내년 상반기로 잡은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광 CTP판재의 판매 현황과 출력센터 반응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판매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만 2010년 (주)피피케이는 약 120여만 판을 판매하였고, 2011년 예상 판매량은 작년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품질 인쇄시장의 확대로 CTP장비의 보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출량 증가는 계속 이어져 내년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력센터의 경우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달 평균 1만~1만5천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수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서비스방향을 돌려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외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선보일 신제품이 있나요?

바이올렛판재와 UV인쇄용 판재가 있습니다. 바이올렛 판재는 신문사용과 상업용 바이올렛 판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판매가 되었고, 품질도 만족할만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이올렛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메이커판만을 쓸 수 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판매량은 작지만 메이커판만 사용한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V인쇄용 판재도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곧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CTP판재는 기존의 메이커판과 중국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면에서는 중국의 판재가 메이저급이라고 100%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단가면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친환경제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피피케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친환경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쇄사들은 현상액 고무액과 그 처리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현상판을 사용하면 이러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 무현상판을 개발했으며, 지난 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품질을 완벽히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기 위해 저희 출력지원센터와 적극적인 테스트 의사를 밝혀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피케이 기자간담회 전경

IT산업의 발달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인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해 피피케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인쇄시장의 성장세가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교과서를 더 이상 책자로 만들지 않고 전자책으로만 만들 것이라는 발표도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잡지 등 많은 인쇄물들이 디지털인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디지털인쇄가 유지비측면에서는 탁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CTP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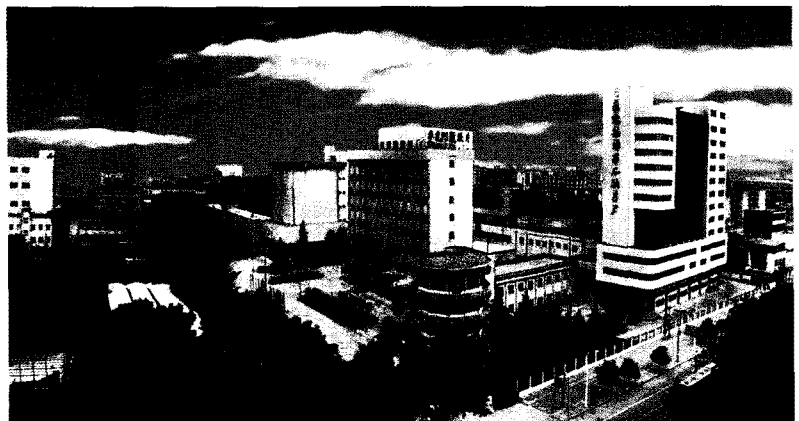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많은 인쇄물들이 있는 반면 새롭게 태어나는 인쇄시장도 분명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피피케이는 인쇄시장의 강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을 방문해 주신 럭키그래픽스사 총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텅 팡치엔 럭키화광그래픽스 총사장은 한국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방문으로 양사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강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광과 피피케이는 힘을 모아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고객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피피케이와 화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ip

럭키 화광 그래픽스

중국 허난성 난양시에 위치한 럭키 화광 그래픽스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오프셋 인쇄판재를 위주로 한 인쇄 영상정보 기록 재료 과학연구 생산기업이며, 중국내 유일하게 인쇄필름과 인쇄판재 생산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영기업이다.

럭키화광 그래픽스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각종 전문 기술원이 900여명에 달하며, 석박사 200여명을 포함한 전임연구개발팀을 보유하여 중국내 인쇄 인화재료기술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현재 인쇄판 생산라인은 7개이나 현재 1개 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중 제7호 생산라인(디지털 플레이트 생산라인)은 2009년 설립했으며, 45m/분의 속도로 1600만㎡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급 CTP판재를 생산하고 있다.